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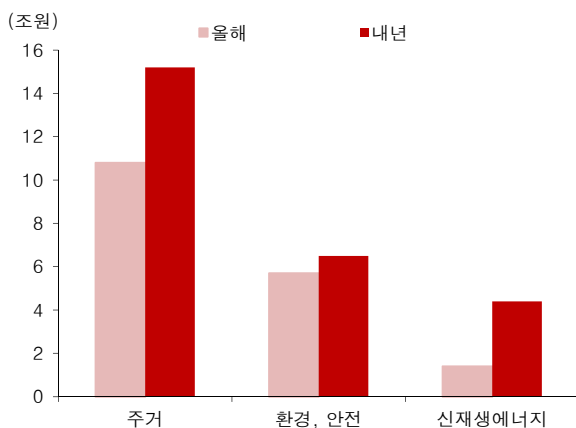
Issue Comment

- ✓ 24 일, SOC 투자 확대 방안 발표
-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고려, GTX 및 신공항 수혜 기대
- ✓ 중소형 건설주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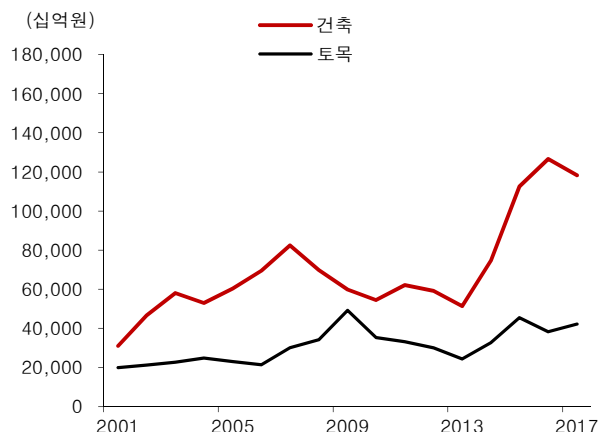
[건설] 정부의 달라진 SOC 투자 기조

- 24 일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를 제시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교통, 물류, 전략산업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이달 말 TF 구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선정하고, 대략 11 개월 가량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GTXB, C 노선 및 각종 지역 거점 공항에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
- 또한, 주거, 환경,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SOC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올해 17.9 조원에서 26.1 조원으로 증액할 것으로 밝힘.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 택지 개발과 같은 주거 분야와 노후발전소, 댐, 철도 등의 시설 보완에 대한 공공기관 투자 금도 8.2 조원 증액하기로 결정함. 결국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SOC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 국내 건설 업황이 민간 주택 부문을 필두로 빠르게 꺾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SOC 카드는 지역 거점 경제 살리기 및 국내 중소형사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매우 우호적 정책으로 판단. 한동안 모멘텀이 없어 눌려있던 중소형 건설주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SOC 특화 기업의 경우 추가 수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국내 건설 수주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SK 증권

자료: 국토교통부,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